

사회

연구비 도둑질 순천대 교수 둘 구속

납품업자와 짜고 14억 횡령 ... 교수·업자 6명은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대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 <본보 6월 25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자와 짜고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9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빼돌린 순천대 반모(56·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손모

(59·생물환경학과) 교수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대학 조모(47·생물환경학과) 교수 등 교수 4명과 연구비 편취에 공모한 반모(60)씨 등 납품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2006~2009년 국가지원 연구비 등 모두 20여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또 조 교수는 2006~2010년 지원 연구비 7억8000만원 가운데 1억3900만원을 편취했으며, 나머지 교수 4명은 각각 2800만~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반씨 등은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 과제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4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

돌리는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먼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업자들 역시 교수들과 짜고 수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지청 김희재 차장검사는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부와 대학 당국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중학교 수련회에서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피해학생 부모 항의 ... 광주서부교육청 진상조사

광주의 한 중학교 수련회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서부교육청과 광주 모 중학교 학부모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밤 전남의 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취침지도를 위해 자신의 반 학생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 B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방에 누워있던 다른 여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말해 외부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전남의 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 부모의 항의에 따라 A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 많은 만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만취 40대 구급대원 폭행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4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이모(40)소방장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

성추행 여대생이 체대생일 줄이야

○체육 전공 여대생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하려다 오히려 뒤늦게 여대생에게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배모(21·광주시 남구 양림동)씨는 29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교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K(여·24·광주시 남구 양림동)씨의 뒤에서 몰래 상의를 올리고 몸을 더듬은 혐의.

○K씨는 광주 모 대학 체육대 4학년 학생으로 평소 달리기를 통해 체력단련을 했으며, 이날도 새벽 운동 중 배씨가 추행하려다 도망치자 3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남광주시장 주변에서 신분매달 나온 고교생과 배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K씨는 광주 모 대학 체육대 4학년 학생으로 평소 달리기를 통해 체력단련을 했으며, 이날도 새벽운동 중 배씨가 추행하려다 도망치자 3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남광주시장 주변에서 신분매달 나온 고교생과 배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형은 업자·동생은 교수... ‘눈먼 돈’ 빼돌려

순천대 교수들 연구비 횡령 실태

업체 통장으로 출금 '능직적' ... 유흥가 거액 탕진도

순천대 교수 6명이 29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교수와 업자 사이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리 유형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교수는 연구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친형이나 자신에게 지도받은 학생 등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교수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빼돌린 횡령액은 모두 14억5000만원. 이 가운데 반모(56) 교수는 친형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무려 1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눈먼 돈’이란 생각에 ‘형 좋고, 동생 좋은’ 비리를 공공연히 저질러온 것이다.

또 다른 교수는 지도 학생이 차린 납품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리거나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업체와 ‘검은 거래’를 일삼았다. 심지어 일부 업자는 교수들이 돈을 요구하자 자신의 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넨 경우도 있었다.

교수들은 또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

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교수는 수년 전부터 지역 유흥가에서 거액을 뿌리고 다녀 ‘교수가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교수들과 업자들 사이의 고질적인 유착이 낳은 도덕적 불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학 측이 연구과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수 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시스템도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연구비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대학 측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연구비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이동안전 우리가 지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광주청 빛고을홀에서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모범안전자회·시민명예경찰 등 협력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체 합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윤정 민주당위원장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남부경찰은 29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정 민주당 남구지구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국립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을 확보해 자료분석 작업을 받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50대 ‘늦은 귀가 편진’ 장애인 친딸 살해

환경경찰은 29일 말다툼 끝에 정신 지체 장애인 친딸을 살해한 원모(51)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원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께 해남군 해남읍 자신의 집에서 “왜 귀가가 늦느냐”고 따지는 딸(19·정신 지체 3급)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달

40대 ‘바람 피운다’ 의심 전처 폭행 치사

광주관산경찰은 29일 이혼한 뒤 함께 지내던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43)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밤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전처

잠적 10일째 ... 오현섭 시장은 어디에?

해외도피·밀항설까지 ... 여주시 이임식 취소

‘여주시 경관조명 뇌물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여주시장이 9일째 연락이 두절되면서 여주시가 30일로 예정된 이임식을 취소했다.

오 시장은 전 여주시 김모(여·59) 국장이 경찰청에 구속된 지난 21일 갑자기 3일간의 연가를 내고 잠적했

으며, 24일부터는 정식 휴가도 내지 않은 채 29일까지 무단결근 상태다.

이처럼 오 시장이 종적을 감추자 은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초 잠적 초기에는 경찰 출두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그러나 잠적

상태가 길어지면서 경찰 비밀 출두설, 해외 도피설에 밀항설, 심지어 신변이상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수 경찰은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모(67)씨의 여주시내 자택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을 확보해 자료분석 작업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개강 7월 1일

7월 9일 공무원 여름방학 대개강

5년인수호남지역 최대 합격자 및 수석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 이상 석권

최강의 강사진과 초대형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 전국 최고의 명문학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1-234-0234)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7월 9일 공무원 여름방학 대개강

5년인수호남지역 최대 합격자 및 수석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 이상 석권

최강의 강사진과 초대형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 전국 최고의 명문학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1-234-0234)